

내 권익은 내가 찾자



김 찬 채
(본회 안양·시흥지부장)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은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슬기롭고 함축성 있는 좋은 교훈이다. 6.29선언 이후 우리나라에 자유화의 물결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너무나 할 것 없이 입만 열면 자유화,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그동안 억압받고 있던 국민감정이 홍수처럼 분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출의 조직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학생연맹이라는 조직력이 있으며, 산업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라는 결집된 힘에 의하여 분출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 양돈인들이 부화뇌동하여 남이 하니까 나도 하자는 식의 힘의 과시를 표현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리로 뛰쳐나가 큰 소리를 내고 최류탄이 터지고 신문에 큰 활자로 게재되고 하는 것만이 힘의 표현은 아닐 것이다. 말없는 침묵 속에서 내실적 힘을 가질때 내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남이 우리 힘을 인정하고 내가 소리내기 이전에 찾아와서 우리 소리를 듣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옳은 민주적 힘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양돈인이 모여진 단결된 힘이 내실을 다지는 것이요, 내실있는 힘이란 바로 우리 권익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권익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의 노력과 모아진 지혜 그리고 협회를 중심으로 굳어진 단결력에 의하여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너의 권익이 이것이니라」고 하는 사람도, 사회도 없다. 듣기로는 선진국 농민들의 목소리는 크고도 높고 농민의 한마디가 국가정책을 변동시키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한다. 선진국일수록 농민들의 협동조합이나 협회가 발달하여 목소리가 높고 파워가 세다. 우리나라는 한 국동란으로 초로화 되었던 강토를 재건하고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선진국을 따라가자니 부득이 2·3차 산업에 역점을 둘 수 밖에 없었던 정부 정책에 의해 1차 산업은 뒤로 물러났다.

그러다 보니 2~3차 산업 역군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소리만 듣다 보니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소리는 들을 기회도 없었고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농자는 천하지 소본」으로 되었다. 농촌이 낙후되어 농민은 농토를 등지고 도시로 밀려갔고 도시인구가 집중화와 도시의 확장으로 농토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하고, 도시 주변의 농가와 양돈장은 변두리로 쫓겨 다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겨 갈 곳도 없는 형편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때는 왔나 보다. 우리 양돈인은 나의 권익을 찾고 남이 내가 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큰 소리를 내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따라서 「농자는 천하지대본」은 못되어도 「농자는 천하지중본」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금번 대한양돈협회 안양·시흥지부를 결성하면서 절실하게 느낀바는 우리 양돈인들의 생각이 「농자는 천하지소본」이라는 것을 면치 못하는 까닭을 알 수 있었다. 양돈인들의 사고가 스스로의 권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대다수 양돈인들은 「나 같은 소규모 양돈인이 협회가 뭐 필요한가」 또는 「협회 없이도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굳이 협회에 돈을 내면서 까지 무엇하러 가입하겠는가」라는 말도 있었다. 참 한심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을 회원으로 지부를 결성하면 무엇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몇 번씩이나 좌절하곤 했다.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며, 자해하는 사람에게 무슨 약이 필요하며, 천하 제일의 의사인들이 어찌 치료할 수 있겠는가?

양돈협회는 다두사육자의 전용물이 결코 아니며, 전국 양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양돈인의 집결된 힘의 원천에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회는 회원만을 위한 협회여서는 안된다. 전국 양돈인을 위한 협회여야 한다. 회원은 물론 비회원에게도 협회의 필요성과 협회의 역할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양돈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양돈협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첫째, 소규모 양돈인을 위한 협회의 필요성은 다두사육농가보다 더욱더 절실하다. 그 까닭은 다두사육농가는 종돈의 확보에서부터 사육판매까지 자력으로 원만히 경영할 수 있다. 반면에 소규모 사육가는 종돈부터 판매까지 자력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어려움이 태산같다. 특히, 종돈의 확보는 선택부더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돈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모돈 수가 적으니 적절히 활용도 못하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사료만 먹고 필요할 때에 사용하려면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종돈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또한 자기가 가진 모돈(후보돈)에 알맞는 종돈의 품종을 확보하기도 또한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진 종돈을 모돈의 품종에 맞든 맞지 않든 사용할 수 밖에 없으니 근친교배가 되고 자돈은 능력이 나쁜 돼지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소규모 양돈인은 협회를 통하여 좋은 종돈을 공동 사용할 수도 있으며, 품종에 맞는 종돈의 활용도 가능하여 손쉽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비단 한 예에 불과하며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 수백가지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구구히 설명하자면 한이 없으니 생략키로 하자.

둘째, 협회 없이도 지금까지 잘해 왔다는 생각이다. 자기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다. 협회 회원이 돈육소비 홍보며, 대정부 건의며, 돈육수출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이때에, 남이 돈을 내어 차를 대절해 가는데 자기는 무임승차하고도 무임승차인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국 양돈인의 흠어진 힘은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 흠어진 태양열이 돋보기를 통하여 한 초점으로 집중되었을때 뜨거운 열을 발하여 불이 되듯이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모여진 전국 양돈인의 힘은 위대하고 큰 힘이 될 것이다.

협회는 우리 양돈인의 뿌리요, 대변자요, 힘의 덩어리요, 양돈인의 초점이다. 속이 짝 찬 수레는 소리없이 간다. 속이 찬 수레의 힘은 무한하다. 남이 넘볼 수 없는 무서운 힘이다. 그 무한한 힘이 나의 권익보호의 무기요 방편이다. 오라고 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찾아가 수레의 속을 채우자

2·3차산업에 밀려 났었던 우리의 1차산업을 재건하고 1차산업의 권익을 다시 찾고, 양돈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 혼자서 찾지 못했던 권익을 뭉쳐진 힘으로 쟁취하여 위축되고 쫓겨만 다니던 우리 양돈인도 어깨를 펴고 하고픈 말을 하면서 살아 가자.*